교통사고 없는 세상 만들자

광주일보·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공동 캠페인

① '사고 천국' 오명 벗자

광주·전남지역의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엔 인구 337만781명 중 674명(사망률 5천명 당 1명)이 숨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한해 9조1천229억원이 된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와 공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교통법규 지키고 단속강화 하니 광주 올해 사망률 20%나 감소

지난해 광주·전남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시는 사망자 증가율 30.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자동차 1만대 당 17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남은 173.6건으로 ▲경북 170.3건 ▲강원 159.3건 ▲전북 153.4건 ▲대구 151.4건보다 높고 전국 평균(134.5건)을 훨씬 상회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광주의 경우 8천27건으로 2005년에 비해 2.9% 증가했고, 전남은 1만642건으로 1.6% 늘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21만3천745건으로 지난 2005년 21만3천319명에 비해 426건(0.2%)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광주가 134명으로 전년대비 30.1%(31명)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은 524명으로 5.4%(30명) 감소했다. 전국적인 사망자 수는 6천327명으로 지난 2005년 6천278명에 비해 0.8% 줄었다. 또 광역시보다는 도에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호 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장은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경찰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면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의 경우 사망자 증가율이 전년대비 20% 가까이 준 것만 봐도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2006년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 시도	발생건수				사망자		
	건	증감수	증감율	점유율	명	증감수	증감율
계	213,745	-426	-0.2	100	6,327	-49	-0.8
서울	38,298	-312	-0.8	17.9	452	-33	-6.8
부산	12,853	980	8.3	6.0	252	-10	-3.8
대구	13,097	845	6.9	6.1	227	-8	-3.4
인천	10,909	800	-5.8	5.1	180	-27	-13.0
광주	**8,027**	**230**	**2.9**	**3.8**	**134**	**31**	**30.1**
대전	5,485	66	1.2	2.6	125	9	7.8
울산	4,548	189	4.3	2.1	125	10	8.7
경기	42,036	1,559	-3.6	19.7	1,239	40	3.3
강원	8,593	-89	-1.0	4.0	308	-15	-4.6
충북	7,922	249	3.2	3.7	325	0	0.0
충남	8,419	227	-2.8	3.9	566	-17	-2.9
전북	9,472	351	-3.6	4.4	447	-1	-0.2
전남	**10,642**	**170**	**1.6**	**5.0**	**524**	**-30**	**-5.4**
경북	16,764	12	0.1	7.8	752	18	2.5
경남	13,404	81	0.6	6.3	563	-16	-2.8
제주	3,276	110	3.5	1.5	108	0	0.0

"시민화합체전 만들겠습니다"

오는 10월8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제88회 전국체전에 참가할 자원봉사자 3천여 명이 19일 오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방문객들을 친절히 맞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립대 등록금 年 689만원…6.6%↑

조선대 7.1% 올라 645만원·전남대 399만원

2007년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68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6.6%, 2년제 사립 전문대학은 524만4천원으로 7.1%, 국공립대는 377만원으로 10.2%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경우 4년제 사립대 중 조선대(7.1%)가, 2년제 사립 전문대학 중 동강대학(8.9%)이, 국공립대 중 순천대(12.4%)의 등록금 인상폭이 가장 컸다.

19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 2002년 6.9%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고 상승률로 기록됐다.

2년제 사립 전문대학 인상률 역시 최근 6년간 가장 높았다. 최 의원은 200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3%가량인 점에 비춰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2~3배로 높다고 지적했다.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대학 평균)은 대구예술대 815만원, 을지의과대 811만원, 추계예술대 810만원, 이화여대 791만원 등으로 비교적 높았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은 남서울대가 865만원, 인문사회계열은 을지대가 720만원, 의학계열은 고려대가 1천75만원, 예체능계열은 연세대가 967만원, 공학계열은 고려대가 915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의학계열은 9개 대학 연간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모든 대학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조선대가 645만5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목포가톨릭대 622만6천원, 동신대 620만원, 남부대 619만2천원, 한려대 615만3천원, 호남대 612만2천원 등의 순이었다.

사립 전문대학은 서울예술대학이 757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은 백석문화대학이 705만원, 인문사회계열은 가톨릭 상지대학이 698만원, 간호보건계열은 울산과학대학이 635만원, 예체능계열은 서울예술대학이 757만원, 공학계열은 백석문화대학이 700만원으로 비교적 많았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양보건대학이 563만7천으로 가장 비쌌고, 조선이공대학 543만9천원, 목포과학대학 521만3천원, 기독간호대학 502만6천원 등의 순이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서울대가 543만7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대는 399만6천원으로 전국 45개 국공립대 중 8번째로 많았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4년제 대학 2007년 등록금 및 인상률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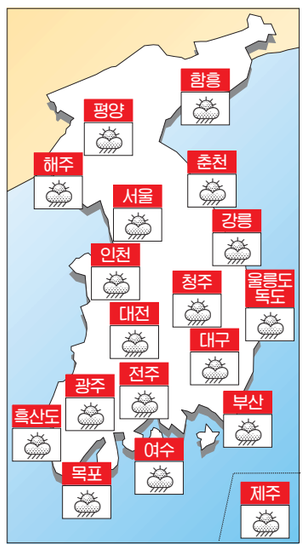
대학명	등록금	인상률
목포대	3,608	10.6%
목포해양대	3,040	10.0%
순천대	3,569	12.4%
전남대	3,996	8.0%
광주교대	2,610	7.2%
광신대	5,632	7.8%
광주대	5,630	5.7%
광주여대	5,650	4.2%
남부대	6,192	5.6%
대불대	5,694	5.1%
동신대	6,200	5.8%
명신대	4,706	-1.4%
목포가톨릭대	6,226	6.2%
영산선학대	2,000	0.0%
조선대	6,455	7.1%
호남대	6,122	5.8%
호남신학대	5,127	6.8%
초당대	5,760	3.5%
한려대	6,153	3.5%

태풍 대비하세요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오겠다.

9월 20일 (음 8월 10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	22~29℃
목 포	흐리고 비	24~28℃
여 수	흐리고 비	23~27℃
완 도	흐리고 비	23~27℃
구 례	흐리고 비	22~29℃
해 남	흐리고 비	23~28℃
장 흥	흐리고 비	23~28℃
고 흥	흐리고 비	23~30℃
순 천	흐리고 비	21~29℃
영 광	흐리고 비	23~29℃
진 도	흐리고 비	23~29℃
전 주	흐리고 비	22~30℃
남 원	흐리고 비	20~29℃
흑산도	흐리고 비	23~27℃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5.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3.0~6.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0.4m

목 포 밀물 07:00 20:09 썰물 00:06 12:00
여 수 밀물 00:57 14:49 썰물 07:10 22:04

▲해뜸 06:18 ▲해짐 18:33 ▲달뜸 14:19 ▲달짐 23:4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날 씨						
최저/최고	21/28	18/29	18/29	18/28	17/28	17/27

오늘 태풍 '위파' 영향권 강풍 동반 최고 60㎜ 비

제 12호 태풍 '위파'(WIPHA)의 영향으로 20일 광주·전남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5~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새벽 3시께 중국 저장성 지역에 상륙한 '위파'가 시속 22㎞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20일 백령도 서남서쪽 290㎞ 해상에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이 몰고온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파도도 전 해상에서 2~6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중국대륙 상륙 당시 최대 순간풍속 초속 45m의 강풍을 동반했던 '위파'는 19일 오후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6m로 약해졌지만, 강풍 반경이 300㎞에 달하는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위파'는 20일 오후 3시께 소형급 태풍으로 위력이 약화, 백령도 해상에 도달한 뒤 21일 새벽 3시께 평양 북동쪽 40㎞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석연휴 소록대교 임시 개통

전남도는 추석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사중인 국도 2개 구간과 소록대교를 임시 개통한다.

이번에 임시개통되는 구간은 ▲고흥군 도양읍 봉양리~고흥군 풍양면 고옥리 ▲고흥군 풍양면 고옥리~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 2개 구간 18.9㎞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과 소록도를 잇는 소록대교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임시개통된다.

평소 1일 180대가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경우 예비차와 전세버스 등 124대를 추가로 투입해 총 304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시외직행 버스도 1일 610대가 1천953회 운행하던 것을 637대 2천26회 운행하도록 운행차량과 횟수를 늘렸다.

열차는 전라·호남선에 KTX와 새마을호 등을 20회 늘려 총 126회 운행하게 되며, 항공기도 서울~광주, 여수 등을 평소 21회 운행에서 30회로 증편 운항하게 된다.

여객선 역시 목포·여수·완도에서 1일 평균 520척이 운항하던 것을 153척을 더 투입해 하루 평균 673척을 운항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인화학교 사태' 일단락 이태화 교장 고소 취하

광주 '인화학교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태화 인화학교 교장은 19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을 폭행했던 학생들에게 ▲정상 등교해 수업을 받을 것 ▲앞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검찰에 출석한 김모(18·고등부 3)군 등 4명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후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김군 등 학생 16명은 지난 5월 28일 교장실에 들어가 이 교장에게 미리 준비한 달걀과 밀가루, 물감을 뿌렸으며, 이 교장은 이들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교원평가제 82% 찬성 교육부 설문조사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법제화와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82.1%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82.1%이며 필요 없다는 응답은 15.3%로 집계됐다.

교원평가제가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76.0%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고 20.4%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